

## 독일 건설산업의 기능인력 교육제도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확립하였고 이에 따른 개방화의 추세는 시장 개방을 통한 건설산업의 국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에 새로운 비전 및 패러다임의 설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 구조는 양적 확대에 익숙해져 있다. 최근 빈발하는 건설 재해도 이러한 의식 구조의 문제가 물리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제 우리 건설산업은 급속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내외 시장의 새로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때이다.

향후 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안정적인 건설 인력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건설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은 최종 생산자인 건설 인력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유능한 건설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설 인력 수급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회성에 그치는 근시안적인 건설 인력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건설업계 자체적으로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산·학·연·상호 협력 체계의 구축도 좋은 해결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유럽의 건설시장을 주도하는 독일건설시장과 기능인력양성제도를 분석하였다. 중세기부터 발달되어온 독일의 건설인력양성제도의 소개가 우리의 건설인력수급대책의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